

목재펠릿, 인도네시아와 협력 개발

2012년 수입 12만톤 상회 ... RPS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

산림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한 목재펠릿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협력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산업계는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이 자카르타(Jakarta)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투자 포럼>에서 목재펠릿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도입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 늘릴 방침이다.

목재펠릿(Wood Pellet)은 톱밥 등 바이오매스를 압착해 만든 작은 입자로 발전·농업용 연료로 채용되고 있다.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은 2009년 8470톤에서 2012년 5만1300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에서 4만1700톤, 말레이시아에서 3만698톤 등 12만2000톤 정도를 수입했다.

목재펠릿 수요는 발전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 110만톤으로 늘어나고 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합판, 펄프, 제지 등 기존 목재산업 뿐 아니라 목재펠릿 등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분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밤방 헨드로요노 인도네시아 산림부 산림개발청장은 “바이오매스가 인도네시아 경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바이오매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06>